



미 증시, 지표 부진, 파월의장 발언 경계심리 등으로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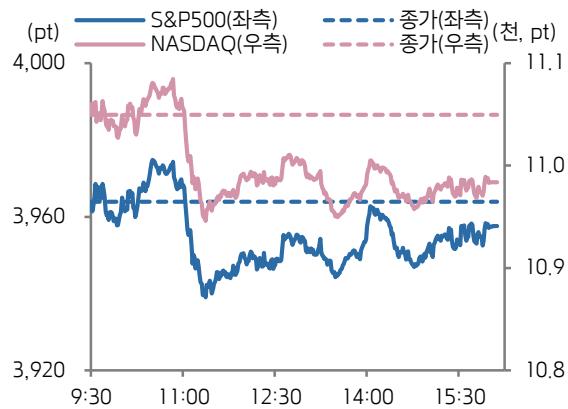
29 일(화) 미국 증시는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 추가 완화, 미국 경제지표 부진, 파월 연준 의장 발언 경계심리 등이 상하방 요인이 공존함에 따라 혼조세로 마감 (다우 +0.01%, S&P500 -0.16%, 나스닥 -0.59%). 업종 별로는 부동산(+1.7%), 에너지(+1.3%), 금융(+0.7%) 업종 강세, IT(-1%), 유ти리티(-0.7%), 경기소비재(-0.4%) 업종 약세.

중국 정부는 코로나 봉쇄를 완화하고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발표. 노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 강화를 발표했고, 기대했던 방역 완화 조치는 나오지 않았으나 28 일 기준 중국 신규 확진자수는 3 만 7 천 477 명으로 전날보다 1 천 331 명 감소해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면 방역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각.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첫 월요일(현지시간 28 일)의 소매 매출을 일컫는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올해 역대 가장 높은 112 억달러~116 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음. 블랙프라이데이와 추수감사절을 포함한 사이버 워크 기간 중 매출은 지난해보다 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소비 심리가 건재하다는 기대감 부각.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할인은 소매업체의 마진에는 영향을 주지만 브랜드에 대한 장기적인 충성도를 구축하고 단기 이익에 도움이 되는 수요를 이끈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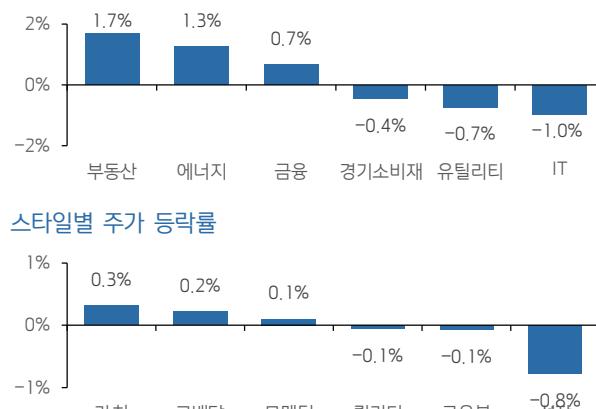
미국 11 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100.2(예상 102.5, 전월 102.2)로 전월대비 하락, 4 개월 만에 최저 수준 기록. 현재 경기에 대한 평가지수는 10 월 138.7에서 11 월에 137.4, 향후 6 개월 간 경기에 대한 평가지수는 77.9에서 75.4로 하락. 9 월 S&P 코어로직 케이스 쉴러 가격지수는 전월대비 -1.2%(예상 -1.2%, 전월 -1.3%) 기록하며 3 개월 연속 하락. 집계측은 전년대비로는 10.4% 상승했지만 이는 지난해말의 높은 주택 가격이 반영된 수치이고 향후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한다고 밝힘. 한편 독일의 11 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0%(예상 10.4%, 전월 10.4%) 대비 상승세 소폭 완화. 지난 9 월 이후 3 개월 연속 10%대상승을 기록한 가운데, 유가 하락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축소로 상승폭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인플레이션 정점 기대 확산.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957.63	-0.16%	USD/KRW	1,327.06	-1.02%
NASDAQ	10,983.78	-0.59%	달러 지수	106.82	+0.13%
다우	33,852.53	+0.01%	EUR/USD	1.03	-0.11%
VIX	21.89	-1.44%	USD/CNH	7.15	-1.41%
러셀 2000	1,836.55	+0.31%	USD/JPY	138.70	-0.18%
필라. 반도체	2,670.65	-0.3%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370.08	+1.59%	국고채 3년	3.710	+4.5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665	+7bp
Eurostoxx50	3,934.44	-0.03%	미국 국채 2년	4.475	+3.7bp
MSCI 전세계 지수	617.15	-1.28%	미국 국채 10년	3.740	+5.9bp
MSCI DM 지수	2,668.44	-1.3%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930.77	-1.09%	WTI	78.86	+2.1%
MSCI 한국 ETF	58.36	+2.67%	금	1763.5	+0.4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2.67%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2.15%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2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24.7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중국 제로코로나 미 폐지에 따른 주가 되돌림 현상 발생 가능성
2. 내일 새벽 파월의장의 연설을 앞둔 경계심리 장중 유입 여부
3. 애플발 악재가 국내 관련 IT 주에 미치는 영향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지난주 블랙프라이데이 매출 호조(약 2% 증가 YoY)에 이어 사이버먼데이 매출(약 6% 증가)도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및 금리 부담에도 할인행사 효과 등으로 미국인들의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은 견조했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11 월 컨퍼런스보드소비자 신뢰지수(100.2, 예상 100.0, 전월 102.2)에서 추정해볼 수 있듯이, 현재 소비 여건 및 미래 소비 전망은 높은 수준의 기름 값, 고가 내구재들의 가격 상승 등으로 취약해지고 있음을 시사. 연말로 갈수록 6 월 이후 연준의 4 회 연속 75bp 인상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미 시장은 향후 경제 지표 둔화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주식시장은 “지표 악재는 증시 호재”보다 “지표 호재는 증시 호재”的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적절.

한편, 새로운 단기 변수인 중국 백지 시위는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중국 정부가 백지시위 사태를 고려해 제로코로나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는 소식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전해졌으며 이로 인해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증시는 전일 큰 폭의 반등세를 연출.

그러나 한국 장 마감 이후 4 시경 중국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노년층 예방 접종 권고, 과도한 봉쇄 정책 재고(봉쇄 지역 및 기간 변경) 등 장중에 들었던 소식과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이를 감안 시 금일 아시아 증시는 제로코로나 폐지 뉴스풀로우 발로 상승했던 분을 일정부분 되돌릴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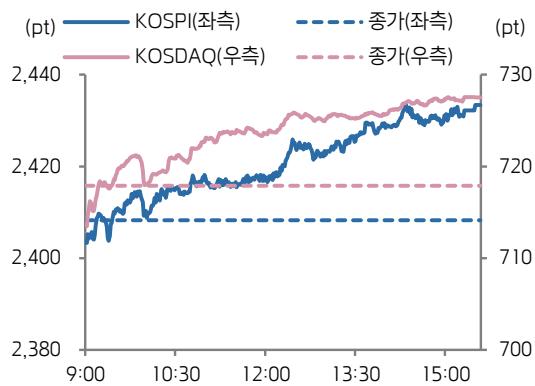
다만, 시위 이전과는 다르게 제로코로나 방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실질적인 스탠스 변화(전면 폐지는 아니더라도 방역 완화의 속도가 기존보다 빨라질 가능성)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금일 주가 되돌림의 충격은 단기적인 반응에 국한될 것으로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블라드 총재의 매파 발언 및 미국 증시 급락 충격에도, 중국 제로코로나 폐지 관련 뉴스풀로우 속 증화권 증시 급등에 힘입어 동반 상승세로 마감(코스피 +1.0%, 코스닥 +1.4%).

금일에는 제로코로나 폐지 상승분의 되돌림 현상, 장저우 공장 사태 발 애플(-2.1%)의 출하량 감소 악재 지속 등에 따른 나스닥 악세에 영향 받으면서 제한적인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대한 민감도가 금주 들어 다소 높아졌음을 감안 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3 시 30 분에 예정된 파월의장 연설을 앞둔 관망심리가 장중 유입되면서 대형주들의 주가 움직임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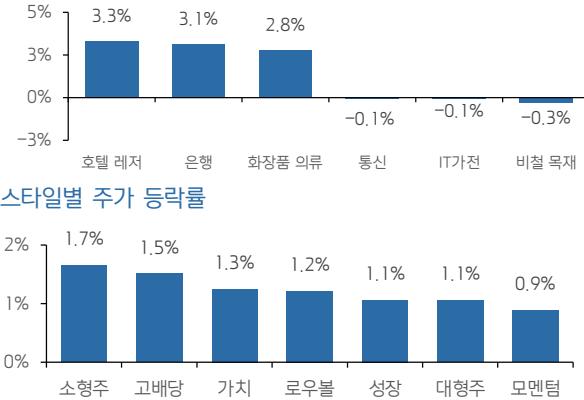
또한 11 월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MSCI 리밸런싱(국가간, 지수 내 편출입 종목 간)이 예정되어 있기에, 장중반 이후 동시호가까지 비차의 프로그램 채널을 통한 외국인들의 기계적인 매매로 인한 수급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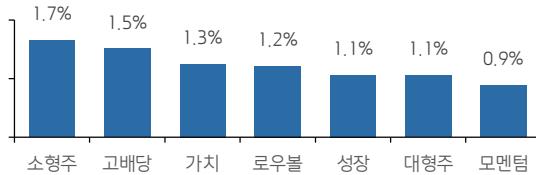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원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자리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